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 그 쟁점과 딜레마

들어가는 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온 사회가 경험했던 엄청난 크기의 슬픔과 무기력만큼이나 우리의 저널리즘에게는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다. 당시부터 시작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조롱 가득 찬 말이 상징하듯 우리사회에 저널리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잘못된 정보와 판단착오, 취재행태 및 편집 방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타와 비난을 겪은 시기였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차원의 딜레마를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당일부터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교주격 인물로 규정되었고, 이후 유병언에 대한 수사, 추적, 주검발견 등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보도는 유병언 및 구원파 관련 기사에 잠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부부를 비롯해 청해진해운 직원의 80~90% 이상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 금수원이 유병언 소유라는 보도, 1987년 오대양 사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관련되었다는 보도 등 다수의 언론이 앞다퉈 경쟁적으로 밝힌 바가 오보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실 세월호 사건에서 파생된 구원파 보도는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의 일반적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다. 재난보도라는 특수 상황과 연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제도권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종파였다는 점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보도가 갖는 함의 및 문제점에 대한 본격

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만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탐색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종교 저널리즘¹⁾ 자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종교는 저널리즘의 중요한 대상영역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영역과는 달리 저널리즘이 직면하는 많은 쟁점과 딜레마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 국내외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앞으로 종교와 저널리즘이 상호 만나는 지점이 증가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저널리즘과 종교의 교차점이 만들어내는 여러 차원의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쟁점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저널리즘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종교에 대한 학술적, 실용적 관심과 고민을 요청하고자 한다.

저널리즘과 종교의 만남

일반적으로 근대화(Modernization) 과정은 종교적 세계관이 과학과 합리적 세계관으로 전환되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이른바 세속화(Secularization)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다(Casanova, 1994). 이렇게 볼 때, 전근대성의 상징으로서 종교, 그리고 근대성(Modernity)의 상징으로서 저널리즘이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조화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세속화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근대화 이후에도 종교는 여전히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종교와 저널리즘의 조우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출범을 전후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종교의 재등장(Re-emergence of Religion)” 혹은 “탈세속화(De-secularization)”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Berger, 1999; Hoover, 2006) 그 의미가 크다. 우선, 냉전시대에 정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립하던 세계질서는 냉전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재편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랍 지역에서 나타나는 종교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의 부상과 이에 대한 서구사회의 공세적 반응은 이러한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2001년 글로벌 사회의 재구성을 촉발한 9·11 사태를 전

1) 여기서 말하는 '종교 저널리즘'은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세속(secular)' 저널리즘을 말한다. 참고로 종교 저널리즘의 개념은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저널리즘 미디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후해 종교는 글로벌, 로컬 차원의 갈등과 분쟁의 주요 축으로 등장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걸프전이 그랬고,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프리카, 아랍권으로 확산된 재스민 혁명과 아랍 지역의 반미시위의 배경에도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한 IS 세력이나, ‘나는 샤를리다’ 운동을 촉발한 프랑스 언론사 테러의 뒤에도 어김없이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퇴장을 주장하는 세속화론이 명쾌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존재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소위 ‘고소영’ 논란을 비롯, 불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종교차별 논란은 종교와 현실정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 경험이었다. 또한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법정 스님 등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종교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타났던 전 사회적 추모 분위기와 반향에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도박과 이의 폭로, 그리고 성직자 납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역시 최근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Hoover, 2006).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다(Clark, 2003).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에 활용되는 종교적 상징물, 초자연성, 초월성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하나는 저널리즘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다(Hoover, 1998).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는 종교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사를 별도로 배정하거나 순환보직의 방식으로 종교보도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방송에서 종교는 다큐멘터리나 매거진 프로그램의 단골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신문에서는 ‘종교면’을 따로 두어 이상적인 종교 공동체나 종교인을 발굴, 소개하는 기획보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저널리즘과 종교 간 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2012년 9월 25일 개신교의 한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단법으로 목회세습 금지를 입안하고 통과시켰다. 당시 다수의 일반(세속)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긍정적 평가에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은 사설을 통해 이 결정을 환영했고 KBS에서는 〈뉴스해설〉 시간에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도종교의 개별 종파가 내린 결정을 대부분의 저널리즘 매

체가 단순보도하는 것을 넘어 이를 평가하고, 환영일색의 모습을 보였다. 또 많은 매체는 세습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저널리즘의 종교보도를 통한 실천의 핵심은 ‘규범적 평가’에 있다. 사회적으로 저널리즘에게 부여된 기능에 따라 일반(세속) 사회의 규범을 반영하여 개별 종교집단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 저널리즘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드러난다. 첫째, 종교 저널리즘은 단순히 종교와 관련한 사건사고 등 일상적 보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저널리즘은 종교보도를 통해 일반 사회규범과 개별 종교집단의 규범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규범이 규정하고 기대하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종교 저널리즘은 사회 일반과 주류적 가치에 대한 저널리즘의 진단과 성찰을 반영한다. 종교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궁극적으로 현 사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저널리즘이 종교에 기대하는 가치는 결국 현 사회가 결핍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은 아직 주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다. 학술적 관심을 가지고 종교 저널리즘을 탐구하는 연구자도 많지 않고 그 학술적, 실용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에는 통상 비이성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종교’ 영역을 이성적,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Carey, 2002).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종교 저널리즘의 의미를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라는 특수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점차 더해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교 저널리즘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래에서는 종교 저널리즘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또한 각 쟁점마다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딜레마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앞으로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이 갖는 특성과 함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성찰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종교 저널리즘의 쟁점과 딜레마

1. 저널리즘과 종교의 관계 설정

저널리즘과 종교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각각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이다. 종교가 저널리즘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와 함께 저널리즘이 종교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종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교전통에 따라 미디어·저널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금기가 엄격한 이슬람은 미디어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입장이 강하지만, 개신교 중 대외확장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자파의 선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모색에 매우 적극적, 공격적이다.

이러한 차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교집단은 대체로 저널리즘을 ‘귀찮은’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 고발이 저널리즘의 고유한 업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상징영역의 중요성을 간파한 제도종교들이 홍보·공보 기능을 강화하고 퍼블리시티(Publicity)를 중시하면서 저널리즘을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종교를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시각에서는 먼저 종교를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다. 저널리즘 종사자들 사이에서 종교는 일종의 금기처럼 규정된다(강성훈, 2007; 김대중, 2008). 종교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다룰 경우 이에 동반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비판적 콘텐츠에 대하여 종교집단이 보여 온 공격적 반응의 학습효과라는 이러한 금기로서의 인식을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종교는 저널리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로 간주된다. 특히 미디어의 상업주의적 운용구조가 심화되면서 잠재적 소비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집단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생산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에게 종교는 금기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종교가 지니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저널리즘 고유의 권력 감시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권력화 양상을 보이는 종교집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다. 또한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비판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사회제도로서의 종교의 모습이 포함된다. 종교를 합리성, 다원성, 상대성 등의 근대적 질서에 뒤쳐져 여전히 전통성과 전근대성을 보이는 사회제도로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기타 분야에 비해 저널리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종교전문기자를 두는 소수의 언론사를 제외하면 전문기자를 배정하는 분야에서 종교는 제외되고 있으며, 종교담당은 주로 사회부, 문화부 등에서 직무순환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렇게 상호 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널리즘과 종교 간 관계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갈등관계로서, 저널리즘의 비판과 문제점 고발에 종교기관은 언론조정신청, 법정다툼, 때로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정도로 공세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2008년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의 내용에 반발한 개신교인들이 SBS 사옥을 점거하는 등 갈등관계가 극단적이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종교집단의 반응은 자신들이 독점하던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종교에 관한 담론형성의 권력을 미디어에 양도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저널리즘과 종교가 협력관계를 보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보·홍보기능의 강화를 꾀하는 종교기관들은 퍼블리시티를 기획함으로써 같은 شأن이 다수 매체에 동시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널리즘과 종교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쟁점 : 저널리즘의 대상으로서 종교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엇인가? 일간신문의 경우 '종교면'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사가 종교담당 기자에게 기대하는 기사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2. 종교전통의 가치규범 vs. 저널리즘의 가치규범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교와 저널리즘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교와 저널리즘 모두 규범적 실천(Normative Practice)을 주된 과업으로 삼는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다. 둘 모두 선(善)과 악(惡), 정(正)과 오(誤)를 규정하고 실천하는 권력으로서 존재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이들은 상이한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규범적 실천을 행사하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대 저널리즘은 세속주의(Secularism)에 기반을 두며, 특히 영미권 저널리즘의 전통을 좇아 자유-다원주의를 규범적 가치로 받아들인다(Hoover, 1998). 이에 따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권력이 현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적 영역에서 보

이는 종교의 모습에 저널리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종교가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권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비판적 보도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의 위반에 대한 경고와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종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절대화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회제도이다. 종교전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삶과 죽음, 역사와 운명의 거대담론을 규정하는 원리들로 구성된 종교적 신념체계는 그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다른 신념체계와의 공존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종교집단은 자신을 향한 저널리즘의 비판을 종교적 가치에 대한 세속사회의 몰이해와 도전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종교를 사적 영역으로 분류, 저널리즘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의 중심에 있던 ‘구원파’처럼 한 종교집단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을 경우 서로 다른 가치규범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강해진다. 신흥종교나 특정 종교 내 새로운 종파 등이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저널리즘은 이들을 신비주의적이거나 일탈적 집단으로 규정하여 타자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교리나 실천의 차이에 따른 분파의 성향이 강한 한국 개신교의 경우 소위 ‘이단’, ‘사이비’ 논란이 자주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제도권 종파의 반발도 거세다.

세월호 사건 초기 유병언 전 회장과 구원파의 관련성이 부각되면서 구원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이들의 일탈적인 행태, 폐쇄성, 조직 내부의 강한 결속력, 외부를 향한 조직적인 위기대응 등에 모아졌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도는 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 혹은 내부자를 통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이에 대해 구원파는 ‘종교탄압’을 명분으로 크게 반발했다. 사건 자체의 긴박성이나 구원파의 폐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규범에 기반한 저널리즘과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만드는 전형적 사례이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규범에 입각하고 있는 종교와 저널리즘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종교 저널리즘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쟁점 : 저널리즘은 각 종교전통의 가치규범이 지닌 상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나? 저널리즘은 개별 종교전통의 교리 및 신학적 내용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저널리즘은 특정 종교 내부 혹은 밖에서 나타나는 교리적, 실천적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나?

3. 저널리스트 개인의 종교성 vs.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

종교는 저널리스트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영역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가 이익집단으로서 저널리즘 행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 저널리즘은 다양한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깊이 있는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종교보도를 담당한다는 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능통한 경우라면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역시 저널리즘 행위에 이롭다고만 볼 수는 없다. 저널리즘이 기반하고 있는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의 규율은 보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 개인적 정서, 감상,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Shudson & Anderson, 2009).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널리즘 현장에서 객관주의와 중립주의는 매우 중요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 성향은 개인적 주관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간주된다.

보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종교담당 기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주관적 입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이 저술한 종교 관련 저서, 편서 등이 출간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자가 많아지면서 이런 성향이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종교보도의 현상에



서 기자들의 소속종교와 종교적 성향은 저널리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탐색하고, 또 이것이 종교 저널리즘에 함의하는 바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쟁점** : 저널리스트의 개인적 종교성은 저널리즘 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나? 이는 저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종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까?

4. 한국의 다종교 상황과 종교보도의 균형

종교 저널리즘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한국사회의 종교적 맥락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일 것이다. 인구센서스 결과(2005년)를 살펴보면 종교인구는 총 인구의 53.1%로 나타났다. 불교가 전체인구의 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개신교 18.3%, 천주교가 10.9%를 차지했다. 원불교와 유교, 기타종교는 합쳐 1%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종교의 특성은 다종교의 (평화적) 공존으로 규정되고 있다(길희성, 2002).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특정 종교가 존재하지 않은 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를 비롯한 다수의 종교전통들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 간 균형’은 종교보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간주된다. 객관주의와 중립주의가 중시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도는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널리즘의 비판기능과 규범적 기준을 근거로 하는 평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표〉 종교면의 종교별 평가 비율(%)²⁾

구분	호의적	중립적	비판적	합계
불교	80.7	9.7	9.6	100
개신교	47.5	5.0	47.5	100
천주교	82.3	8.4	9.3	100
원불교	95.5	4.5	0	100
복수종교	72.0	20.2	7.8	100
기타	74.7	3.6	21.7	100
합계	71.1	8.4	20.5	100

2) 이 표는 박진규(2011)의 〈표 3〉에서 일부를 변형한 것임

한국의 종교보도에서 개별 종교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사례로, 필자가 수행한 연구(박진규, 2011)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24개월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종교면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먼저 개신교에 대한 보도가 타종교에 비해 비판적인 기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표〉 참조). 기획기사 중심인 종교면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호의적 기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의 호의적 기사 비중은 80% 이상인 데 비해 개신교만 호의적, 비판적 기사가 각각 47.5%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직업윤리인 전문직주의로 설명한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한 연구(박진규, 2008)에서 제작진은 자신들의 역할을 개혁적 정체성, 즉 미디어가 담당해야 할 자유-다원주의적 비판 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다원주의로 규정되며 종교영역에서도 다원주의는 지켜져야 할 가치로 인식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가 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와 행위를 보인다면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권력의 한 축으로 부상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서 볼 때 매우 정당한 것으로 설명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비판이 대중담론(Public Discourse)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저널리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제작진들은 제작과정 내내 일반 대중의 정서를 확인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들의 판단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정서는 이미 한국사회 전반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대중담론에 기초한다.

이렇게 종교 간 균형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자유-다원주의에 기반한 평가에 따라 위반할 수 있는 규범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보도에 있어서 종교 간 편향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종교 저널리즘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종교영역을 벗어난 함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종교 간 균형이라는 암묵적 규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쟁점 : 종교보도에서 종교 간의 균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가치인가? 종교보도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호의적·비판적 시각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저널리즘의 입장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5. 한국사회의 현실 및 종교의 역할에 대한 저널리즘의 진단

특정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지속적 비판은 해당 집단이 권력화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더욱 정당화된다. 선거철 여러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정치행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 정당을 설립하는 등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종교의 모습에 저널리즘은 감시와 비판 기능을 집중한다. 한편 종교 저널리즘은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는 주로 종교 공동체나 종교인을 발굴, 소개하는 기획기사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비판과 기획보도 모두 종교에 대하여 저널리즘이 생산한 ‘기대담론’으로 읽을 수 있다. 종교가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할 이상적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설정해 놓은 종교의 이상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이에 부합하는 모습은 적극 발굴, 소개하는 것이다. 비판을 포함해 종교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것은 첫째, 종교가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현재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둘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종교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 및 가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대담론이 결국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성찰,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상적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종교 저널리즘의 함의가 단순히 종교에 관련한 영역에 머물지 않는 이유다.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은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종교가 담당할 기능·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이 구체적으로 종교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종교를 통해 저널리즘이 투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의 종교면 연구(박진규, 2011)에서 저널리즘은 종교를 통해 ‘다양성’, ‘관용’, ‘배품’, ‘화합·통합’, ‘대안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를 규범으로 하는 저널리즘이 종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반영한다. 결국, 저널리즘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가 그 다원성을 해치지 않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세속 사회가 잃어가는 도덕적, 비물질적 가치들을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기능할 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대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은 현재 우리 사회에 대안적 가치를 제공할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종교가 그 기능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저널리즘이 생산한 종교담론은 현재 한국사회가 종교의 대안적 역할수행이 필요한 사

회라는 진단에 기초한다. 신자유주의적 상황이 주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압력을 혼자 감당하며 스스로 위안해야 하는 개인에게 종교처럼 사회적 안전망과 위안의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사회제도의 중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는 가족이나 학교 등 기존에 대안적 가치제공 기능을 담당하던 사회제도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맥락 속에서, 종교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 이상적 미래에 대한 구상은 이념적일 수밖에 없다. 각 언론사와 저널리스트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종교보도에서는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종교를 통해 투영하는 가치와 사회상에는 이념의 차이가 크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본다.

쟁점 : 저널리즘이 종교에 기대하는 이상적인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저널리즘이 종교에 기대하는 바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러한 저널리즘의 기대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은 각 언론사나 저널리스트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나?

6.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 모습에 대한 논의는 현재 모습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향후 종교 저널리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종교 저널리즘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종교보도의 전문성과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인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종교 저널리스트가 갖춰야 할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조건이 현실화될 것인가?

향후 종교 저널리즘에 대한 전망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종교’의 정의(Definition)와 관련된다. 현재의 종교보도는 대체로 제도종교와 관련한 현상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영역은 제도종교뿐 아니라 유사종교 및 영성(Spirituality)까지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 저널리즘이 다뤄야 할 영역은 제도종교로부터 종교적 현상 일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도권에 있는 종교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이에 위협을 느낄 제도종교의 반발도 예상된다. 종교전통이 지키는 원리에 따라 사이비 및 이단으로 불리던 집단과 현상이 저널리즘에서 호의적으로 다뤄지는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현상으로

서, 또한 저널리즘의 대상으로서 종교는 그 영역이 제도권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은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종교 저널리즘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 앞으로 저널리즘에서 종교영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한다면 그 방향은 어떠한가? 종교 저널리즘에서 제도종교를 벗어난 유사종교 현상, 영성(Spirituality)을 다루는 것은 정당한가?

나오는 말

‘세월호’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 해 우리사회의 저널리즘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쇳말로 기억된다. 둘 모두 저널리즘의 낯선 대상인 종교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종교를 바라보는 저널리즘의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례들에서 저널리즘은 종교를 사회규범과 공유된 가치를 파괴하는 일탈적 집단으로도, 꿈도 희망도 없는 세속사회의 막다른 현실에 새로운 가치와 삶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대안적 집단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두 사례 모두 저널리즘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에 대한 학술적, 실용적 관심을 촉구하였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원과 보도가 낳은 많은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저널리즘이 교황이라는 종교적 아이콘을 통해 투사한 가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도 두 사회제도의 교차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정리한 종교 저널리즘의 쟁점과 딜레마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저널리즘의 만남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위의 쟁점들은 작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과 보도에 있어서 양산되었던 오보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먼저 종교라는 영역에 대한 저널리즘의 이해부족은 특정 종교집단이 갑작스럽게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절치 않은 보도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규범적 실천을 위한 집단이라는 종교의 본질과 함께, 세속사회로서 한국이 종교에 부여하는 의미 등 저널리즘의 대상으로서 종교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체는 종교 영역을 주변화하고 전문 저널리스트 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사례는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이해부족이 특정 종교집단을 타자화하고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된 일탈적 집단으로 규정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속사회에서 공유된 규범을 바탕으로 각 종교집단의 신념과 행위에 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와 해석을 담당해야 할 저널리즘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아쉬움을 남긴 사례였다. 정교한 관찰과 분석으로 이번 보도사례가 남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저널리즘이 종교를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두 영역의 교차점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관심과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성훈 (2007. 3). 언론보도의 성역. 종교계: 특하면 집단행동에 신변위협. 기자 피해의식 커져. 『신문과 방송』, 제435호, 28-31.
- 길희성 (2002). 종교다원주의: 역사적 배경, 이론, 실천. 『종교연구』, 28권, 1-28.
- 김대중 (2008. 9. 7). 언론의 세 가지 터부. 『조선일보』, A34.
- 박진규 (2011).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저널리즘의 기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종교면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9호, 285-329.
- ____ (2008).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2권 6호, 110-148.
- Berger, P. (1999) (Ed.)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 Carey, J. W. (2002). Preface.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1(1): 1-3.
- Casanova, J. (1994)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rk, L. S. (2003). From angels to aliens: Teenagers, the media, and the supernatural.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oover, S. M. (2006). Religion in the media age. New York: Routledge.
- ____ (1998). Religion in the news: Faith and journalism in American public discourse. Thousand Oaks, CA: Sage.
- Shudson, M. & C. Anderson (2009). Objectivity, professionalism, and truth seeking in journalism,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NY: Routledge.

